

“역사문화행사 가득한 익산으로 오세요”

매주 토요일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 함열향교서 '가족 공동체 품에 안긴 유생, 3락(樂)' 개최

익산 역사문화 관광지 곳곳에서 주말마다 낭만과 3락(樂)이 가득한 역사문화행사로 가득 채워진다.

세계유산 미륵사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낭만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2023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가 오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 세계유산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주관한다. 그간 미륵사지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온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는 백제 역사와 음악공연을 콘서트 가이드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트로 구성되어 있다.

22일 토요일 인도악기그룹 '인디아로드'의 공연으로 첫 시작을 연다. 인디아로드는 인도 전통 현악기인 '시타르'와 전통 타악기 '타블라'로 이루어진 팀으로, 인도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인 라가(Raga)를 연주하고 있다.

최근 요가나 명상 수업을 통해 마음과 몸의 균형에 관심있는 현대인이 많아진 만큼, 인디아로드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미륵사지의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사색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공연내용은 익산시 문화유산과



익산 역사문화 관광지 곳곳에서 주말마다 낭만과 3락(樂)이 가득한 역사문화행사로 가득 채워진다.

공식SNS (@iksan_heritage),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식SNS (@luxephil)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익산의 향교 · 서원 대표 문화재인 함열향교에서는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樂)'을 본격 추진한다.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樂)'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문정신 함양,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첫 시작을 22일부터 1박 2일 '가족 공동체 품

에 안긴 유생'이라는 주제로 '1樂 노는 즐거움, 2樂 배우고 자라는 즐거움 3樂 함께하는 즐거움' 총3개 테마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유생복을 입고 함열향교를 탐방하며 전통예절을 익히는 '과거와 친해진 유생', 함라한옥체험관에서 숙박을 경험하며 참가자들에게 문화유산의 이해를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관광지와 문화콘텐츠가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교육 '탄력'

국고 지원사업 공모 4개 프로그램 선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23년 예술교육 부문 국고 지원사업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 총 1억 8768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프로그램은 아트스쿨 XR 세계소리여행과 아트스쿨 탐험대, 발레로 쓰는 자서전, 어른들의 문화놀이터-시작 등이다.

먼저,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스쿨 XR 세계소리여행은 4차 산업 신기술을 예술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

참여 학생들은 XR(확장현실)로 펼쳐지는 교육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형 타악기를 직접 창작해보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XR로 제작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아트스쿨 탐험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문화예술자원과 전문 시스템 및 인적자원을 활용해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을 관람하고, 작품과 연계된 감상교육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정서를 함양 시키는 예술감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레로 쓰는 자서전은 전문강사로부터 발레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 있고 싶었던 '나의



지난해 '발레로 쓰는 자서전'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뒤 전당 공연장에서 가진 발표회 모습.

정체성을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른들의 문화놀이터-시작은 화가의 작업공간을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화가와의 대화 및 직접 작품을 창작하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주 과정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지역 작가 소장품 등 19점 구입 결정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전북 미술사 구축과 우수한 소장품 확보를 위해 19점의 구입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술관은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

대까지 제작된 작품 및 국제적 작가의 작품을 구입 대상으로 공고해 총 91점이 응모했다.

이후 응모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북 기반 활동 작가들의 작품 19

점(회화 12점, 한국화 3점, 조각 4점)을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구입작은 전북 미술사의 밑거름을 그릴 수 있고, 전북 미술의 시발점을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했으며, 구입작을 소장품 컬렉션에 영구 보존하고 지역 미술사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최초 남원여성농악 원로 4인방 공연

22일 서울남산국악당서 '舞(무)風(풍)' 진행

최초의 여성농악단인 남원여성농악단의 원로 명인들의 공연 '舞(무)風(풍)'이 22일 오후 3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뜻깊은 공연으로 대중들을 만났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2022년) 가을 남원에서 열린 조감녀 추모제에서 원로 여성농악단의 놀라운 춤판을 시작으로 옛 남원여성농악단의 기록과 보존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을 준비하게 됐다.

최초 남원 여성농악단의 상쇠 장흥도(1931년생), 장구 배부순(1944년생), 뒤이은 춘향여성농악단의 소고 박복례(1945년생), 노영숙(1954년생) 명인이 60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뜻깊은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 여성 농악단이 창단할 당시(1959년)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큰 시기

면서, 기존 마을농악이 남성위주로 되어있을 시절로 남원여성 농악단 창단은 편견을 깬 놀라운 일이었다.

획기적인 남원여성농악단의 공연은 전국 순회공연을 다닐 만큼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창단 다음 해 1960년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일등을 하였다. 또한, 남원여성 농악단의 성공적인 창단과 많은 남기로,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 농악단이 창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통공연계에서 농악보다는 판소리와 가요를 우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주요 단원들이 농악단체를 그만두게 되고, 남원여성농악단의 시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멈추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길우 · 이상희,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MC... 2년 연속

배우 강길우와 이상희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23회 영화제에 이어 2년 연속 폐막식 사회를 보게 됐다.



강길우



이상희

'정말 먼 곳'의 주연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전주 시내투어', '전주영화X마중' 프로그램에 참여해 관객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

오는 5월 6일 오후 6시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게스트 레드카펫 입장, 경과보고, 수상작 소개, 폐막선언, 폐막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박하선이 주연한 이 영화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아내의 시간을 담았다.

/뉴시스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선정

남원시는 제26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의 수상작 37점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심사에는 옷칠, 목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일반인 참관단 2명이 함께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은 박미란(경기 안산) 작가의 △심장생문 나전 장식장(경이 △옷칠목공예 부문 금상은 정기환(서울) 작가의 '고려 당초문 차잔 세트' △갈이 부문의 금상은 송지수(충남 공주) 작가의 '꽃을 꿈꾸다'가 선정되었다.

정복상 심사위원장은 "전승 기법에 충실한 작품부터 현대적 조형성을 잘 표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기법과 기능의 출품작이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26일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남원 전시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에서 20일에는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 6월 26일에서 7월 7일까지는 전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